

왜 국보가 되지 못했을까... 걸작 문화재 35점 조명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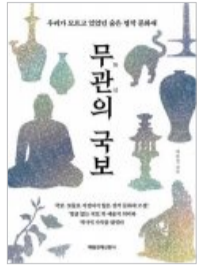
무관의 국보

배한철 지음

'무관의 제왕'이라는 말이다. 말 그대로 관이 없는 제왕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왕관이 없는데 어떻게 제왕일까. 다분히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눈에 보이는 왕관은 없지만 제왕의 권위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무관의 제왕들이 있다. 빛나는 타이틀은 없지만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 있다는 의미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갖췄지만 우승을 하지 못한 이들을 일컫어 무관의 챔피언이라고 한다. 흔히 재야의 고수라는 말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은 공식적인 '메달'이나 '상'은 없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 문화재 가운데도 무관의 제왕들이 많다. '통일신라 철조여래좌상'을 비롯해 '분청사기 철화 연꽃물고기무늬 병', '김명국 달마도', '강희안 고사관수도', '이경윤 고사탁도', '석조약사여래좌상', '고려정병' 등은 우리 문화재에서도 손꼽히는 무관의 제왕들이다.



위에 열거한 문화재들은 당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유물이지만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무관의 국보, 무관의 걸작품인 것이다. 물론 문화재를 국보나 보물로 지정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정성적인 평가에 기인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시대를 대표하며 제작방법이 우수해 그 유례가 적은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문화재위원들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숨은 명작 문화재를 소개한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지 않은 걸작 문화재 35점을 조명한 '무관의 국보'는 비지정 국보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배한철 경영학 박사다.

저자는 문화재와 한국사에 빠져 전국 박물관과 유적지를 중형무진 누비고 있다. 지금까지 '얼굴, 사람과 역사를 기록하다', '역사, 선비의 서재에 들다', '국보, 역사의 명장면을 담다' 등 베스트셀러를 펴냈다.

"문화재는 우리 조상이 살았던 자취이자 역사의 징표이다. 그 시대의 흔적과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문화재인 것이다. 필자는 문화재를 바라보고 있노라만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것을 느낀다."

'분청사기 철화 연꽃물고기무늬 병'은 이삭과 파

격 등 서민의 생활감정이 잘 표현된 유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지 않았다. '분청사기 인화무늬 항아리'도 마찬가지다. 꽃무늬가 반복적으로 새겨진 수작이지만 국가문화재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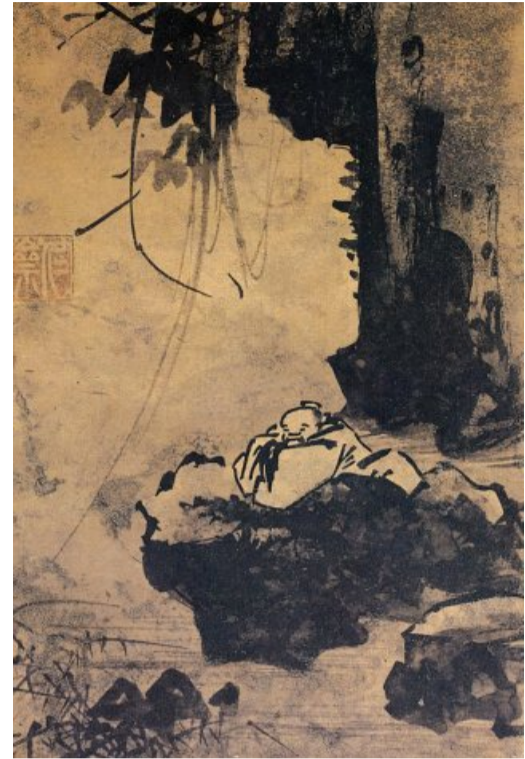
저자에 따르면 "분청사기는 국보가 6점, 보물은 27점에 불과하며 여전히 많은 명품 분청사기들이 국가문화재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원 김홍도는 도교의 신선이라는 주제를 자신만의 화풍으로 형상화한 화가다. 스승 강세황이 쓴 '단원기'에는 "아름다운 풍채에 도량이 크고 넓은 일에 구애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신선과 같다고 하였다"고 쓰고 있다. 그만큼 단원의 신선도는 세속을 초월하는 고상함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삼성미술관 리움과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신선도 외에는 국보나 보물이 아니라고 부연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김명국의 달마도'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달마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명국은 "중국의 절파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종화풍을 수용해 독자적인 회화양식을 구축"한 것이 정평이 나 있다. 그의 달마도는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그린 것이다. 다행히 국립중앙박물관이 구입해 소장하고 있지만 국보나 보물은 아니다.

이밖에 책에는 정조의 왕권 강화 야심을 엿볼 수 있는 '화성행궁도'를 비롯해 17세기 조선 실상을 보여주는 최초의 한글요리서 '음식디미방', 독일이 반환한 '왜관수도원 경제화첩' 등도 만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사·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청자 상감 모란국화무늬 정병', '강희안 고사관수도', '분청사기 철화 연꽃물고기무늬 병'.

나는 다른 행성에 있다

한경숙 지음

"관계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아닌 세상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꺼내면 꺼낼수록 떨지면 떨칠수록 나는 여전히 시가 아프고 나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 떠나는 모험처럼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에 위로가 됩니다."



자신을 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있을까. 한경숙 시인이 첫 시집 '나는 다른 행성에 있다'를 펴냈다. 2019년 '딩아들'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온 시인은 오랫동안 시에 대한 갈망을 품고 살았다.

문순태 소설가는 "한경숙 시에는 신선한 삶의 이야기가 내면에 양금처럼 녹아 있어 잔잔한 울림을 준다. 어쩌면 삶이란 슬픈 이야기인지도 모른다"며 "한경숙의 시 역시 슬픈 여정 속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고된 삶의 편린들이 오랜 시간 쌓이고 응축되어 숙성된 시어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림자'라는 작품은 시인의 자화상 내지는 삶의 단면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삶 속에 계속해서 던져진 것/ 눈에 띄는 것이 싫어서/ 숨어 있거나 일상에 바짝 붙어// 빛이 통과하지 못한/ 어떤 밤이 되고서야 겨우 꺼내어 본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오늘도 그냥, 함께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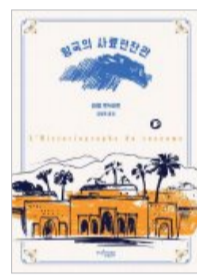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의 모습이 '그림자'로 상징할 수 있겠다. "삶 속에 계속해서 던져"지는 그런 존재이면서 "빛이 통과하지 못한 어떤 밤이 되고서야 겨우" 볼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다. '그림자'가 되지 않고는 온전한 하루를 살아낼 수 없는 오늘날 현실을 시인은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시선으로 응시한다.

〈걷는사람·1만2000원〉

왕국의 사료편찬관

미엘 르누아르 지음, 김병욱 옮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즈음 독립의 기운을 뿜어내던 시기였다.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에 위치하며 동북쪽으로 지중해, 서쪽으로 대서양에 접한 모로코.



평범한 부모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장차 왕국이 될 왕세자 동급생으로 선발된다. 장차 왕이 될 사람의 측근이 된 소년은 훗날 왕국의 사료편찬관이 된다.

왕세자의 아버지인 현재의 왕은 아들을 엄격하게 교육시킨다. 결코 특혜는 없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운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바라는 만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유급을 당할 위기에 처한다.

작가와 번역가, 철학자로 활동하는 미엘 르누아르가 펴낸 '왕국의 사료편찬관'은 왕의 말과 글을 담당할 한 남자의 고백이다. 왕궁의 백스테이지에서 사료편찬관의 시선을 통해 재조명한 모로코의 근현대사를 그렸다. 작품은 지난 2020년 공쿠르상 최종심과 프랑스 아카데미 소설 대상 최종심에 올랐다.

소설에는 왕의 아들의 유급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사로 대두된다. 왕자의 유급은 동급생 모두의 유급을 의미했다. 그러나 주변국의 민감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의 졸업을 지연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더 많다.

보호령에서 독립국이 될 긴박한 국제정세를 비롯해 호시탐탐 왕정을 전복하려는 국내 반대파들 사이에서 왕세자는 그에게 지워질 책무를 즉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왕세자의 동급생들 역시 언젠가 자신들의 동기가 왕이 되는 순간 그의 부름을 받게 될 거라는 암묵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소설은 프랑스 보호령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개막하기까지의 모로코 30년 역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다. 〈유티트리·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림, 클래식 악기를 그린다

장금 지음

피아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은 아마도 르누아르의 '피아노의 앞의 소녀들' (1893)일 듯하다. 피아노 앞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한 소녀와, 그의 곁에서 함께 악보를 바라보며 서 있는 또 한 소녀의 모습을 담은 그림은 평온하다. 당시 사회적 악기로서의 피아노가 가진 이미지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고상한 취미를 즐길 줄 아는 중류층의 안락한 가장'이었다.



'그림, 클래식 악기를 그린다-피아노에서 하프까지, 명화가 연주하는 여섯 빛깔 클래식 이야기'는 바이올린, 피아노, 팀파니, 류트, 플루트, 하프 등 6가지 악기를 키워드 삼아 악기 제조의 역사, 악기를 사랑한 음악가와 그에 얽힌 드라마틱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배경까지 살펴본 책이다.

저자 장금은 서울대에서 작곡을, 소르본대학에서 음악학을 전공한 장금으로, 인기 팟캐스트 '클래식빵'에서 음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짱언니'로 활동 중이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온라인 콘미공' 진행자도 역임했다.

책에서는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악마와 계약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의 명성이 가능했던 건 신들린듯한 테크닉의 힘있는 연주를 뒷받침해준 '개량된 바이올린 활' 덕이었고, 서양 군대를 공포에 떨게 한 터키 군대의 비장의 무기는 팀파니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또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에 하프를 유행시킨 사연, 국정을 돌보느라 바쁜 상황에서도 류트를 연주하고 사랑했던 엘리자벳 1세 이야기 등이 펼쳐진다.

〈북피움·1만98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